

실용영어 국가공인 자격 관리 운영기관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

강 태 빈 | 한국외국어평가원 이사장

◆자격기본법에 의한 우수 민간자격의 국가공인제도

정부는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대처하고자 자격기본법(1997. 3. 27. 법률 제 5314호)을 제정하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용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당해 자격 종목을 운영 관리하는 적격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국가 공인자격 운영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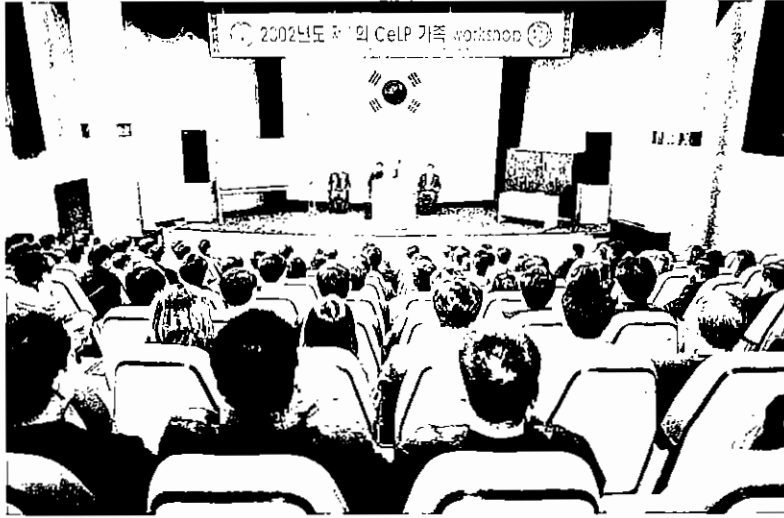
▲ CeLP(1~3급) 실용영어 국가공인증서



▲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한국외국어평가원 가족들

◆실용영어(1~3급) 검정 국내 최초로 영어부문 국가공인 자격 취득

사단법인 한국외국어평가원은 지난 1977년 11월에 창립된 한국사무능력개발원에서 주산, 부기, 타자 등 사무관리 분야의 기능검정업무를 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동 검정업무가 1982년 1월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이관되기까지 4년간 총 응시인원 9,976,455명에 대한 국가 위탁 자격검정 시행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1985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실용외국어(영어·일본어) 및 실용한자 등 어학분야의 등급별 자격검정 제도 CeLP(Certificate of Foreign Language Proficiency) Level test를 19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제정 시행해 왔었다.



▲ 2002년도 제 1회 CeLP 가족 워크숍

이로써 국내 최장기(25년), 최다 자격검정 실적(2001년 말 현재 12,948,189명)을 쌓아 온 한국의 국어평가원은 이미 전국 일원에 걸쳐 현장에서 자격검정 시행관리를 집행 관장할 수 있는 53개소의 분사무소가 포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출제가 공신력있는 평가제도의 필수 요건이므로 영어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연구단체인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엄선 천거한 전문 교수진 31명과 원어민 교수 6명 등 모두 37명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실용영어 CeLP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어 자격검정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축적된 자격검정 시행관리 경험과 조직 및 운영관리 역량이 밑거름이 되어 전술한 바 있는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제반 심사 절차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영어부문 국내 최초로 지난 2002년 1월 10일 본 평가원의 실용영어 자격(1~3급)이 국가공인 자격으로 채택(교육인적자원부 공인 제 2002-01호)되었다.

◆ 실용영어 자격증은 글로벌시대의 필수 자격제도

지금 세계는 급변하는 21세기 정보사회의 구도를 선점해 나가고자 각 나라마다 무한경쟁에 몰입해 있다. 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투쟁은 모든 다른 가치를 우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세계적 추세를 외면할 도리는 없을 것이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원치 않든 그와는 상관없이 오늘날의 세계 정보의 80% 이상이 세계 통용어가 되어버린 영어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미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은 컴퓨터의 활용능력과 더불어 영어의 구사능력이 평생 학습시대에 있어서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구비 요건이 되고 말았다. 그러기에 이제는 각자가 지니고 있는 영어의 구사능력 정도를 객관적으로 공증받는 실용영어 CeLP 급수 자격증이야말로 특정 분야의 전문직 자격증이라기 보다는 범용 자격증이요, 누구나가 소지해야만 할 현대인의 패스포트라 할 수 있다.



▲ 실용영어 자격검정 출제위원 세미나

◆ 점수제 평가방식의 외국 평가제도와 다른 한국외국어평가원의 실용영어 급수제 자격 검정제도

이제 우리는 영어 구사능력을 측정하는 평가 방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즉,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영어능력 평가제도는 ①난이도에 따른 등급별로 구분된 급수제 평가방식과 ②난이도가 혼성된 단일 문제에 의한 점수제 평가방식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 바, 이들 각 평가방식의 효율성과 함께 능력 측정의 정밀도 내지는 신뢰도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토익이나 토플 등 점수제로 된 시험제도들은 난이도의 높낮이가 혼성된 200문항 정도의 단일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험자가 취득한 득점이 그 사람의 능력 정도를 측정하게 되어있어 각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낮은 쉬운 문제에서는 용이하게 얻는 점수와 반면 난이도가 높아서 사실상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에서는 적절히 선택하여 요행으로 얻는 점수 등 득점의 허실이 너무 많아서 정밀

한 능력 측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능력을 측정 평가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외국어평가원의 실용영어 급수제 평가는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되어 초등영어 3개 등급, 실용영어 6개 등급, 모두 9개 등급 한 벌이 총 630문항으로 구성된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수험자가 자기 적정능력 수준의 등급에 응시하여 소정의

합격기준 점수 이상을 득점하면 그 사람의 능력 정도를 급수로써 나타낸 자격증을 발급해 주게 된다.

① 저급에서 고급으로 등급에 따라 난이도를 달리하므로 영어의 초기 학습자(초등영어 3급)로부터 원어민과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능력수준(실용영어 1, 2급)에 이르기까지 상하위 계층 누구나 자신의 능력 정도에 적절한 등급을 자유롭게 선택 응시할 수 있으므로 소외계층이 없다.

② 각자가 채택하여 응시하는 등급에 따라 적절한 난이도를 가진 문제가 집중 제시되므로 허실이 없는 정밀한 능력 측정이 가능하다.



▲ 초등영어 3급 검정에 임하고 있는 수험자들

◆듣기, 말하기 등 의사소통과 발표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방식(2차 시험제도)의 장점

① 각 등급 공히 읽기와 듣기 능력의 측정은 기본이고, 실사회에서 수준이나 활용도가 높은 국가가 공인한 실용영어 1~3급은 1차시험 합격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2차시험에서 영작능력을 겸한 주관식 듣기 평가와 즉석에서 받은 주제(topic)를 가지고 10여 명이 한 조를 이룬 동료 수검자들을 청중으로 가상하여 그들 앞에서 자신이 받은 주제에 적절한 내용으로 2~3분간씩 소견을 발표(public speaking)한 다음 면접위원과의 1대1 Interview Test를 통한 회화실력 등의 표현능력까지 빠짐없이 평가하므로 실사회에서의 활용도가 높다.

② 출제진의 구성이 반드시 원어민이라야 한다는 편견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의 국민 정서와 여건, 환경 또는 관습이나 풍습



▲ 실용영어 CeLP의 2차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수검자

등이 비중 높게 가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양질의 문제 구성은 필수 요건이므로 앞서 밝혔듯이 한국영어교육학회가 엄선 천거한 전문 교수진 31명과 원어민 교수 6명 등 모두 37명이 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양질의 출제를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③ 다만, 토익이나 토플처럼 점수제 형식의 평가제도에 비하면 출제·과제제작·시험관리·성적처리·자격관리 등 검정관리 전반의 업무가 등급별로 따로따로 구분 처리되어야 하는 엄청난 번거로움이 뒤따르지만 고집스럽게도 등급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은 오직 능력 측정의 정밀도와 함께 소외계층 없이 공유해야 한다는 의도에서이다.

◆다양한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실용영어 CeLP 자격증

영어부문 최초로 국가가 공인한 한국의국어평가원의 실용영어 CeLP(1~3급) 자격증 취득자에게

는 자격기본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등 관령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우대하여 선발할 수 있고, ◇ 상응하는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경우 특별전형시 우선 선발할 수 있으며, ◇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자격증 취득란 기재, 상급학교 입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정**